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2. 25.(금) 16:30
기획재정부 <총괄>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심현우(044-215-4750)
		│ 남당사 │	사무관 장시열 (siyul@korea.kr)
			사무관 이정아 (ja9595@korea.kr)

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우리기업 대금결제 관련 대응방향

□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(2.22일, 24일)함

※ 미국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주요 내용:

- 러시아 1위 은행(Sberbank) 및 자회사의 美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여 美달러화 사용금지(유예기간 30일, 3.26일부터 적용)
- 러시아 주요 은행(VTB, VEB, PSB, Otkritie, Sovcom, Novikom) 및 자회사 등을 제재대상자(SDN^{*})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하고,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 기관은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등 2차 제재(Secondary Boycott) 부과
 - * SDN: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
- 美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 금지(3.1일 이후 발행부터) 등
- □ 정부는 이번 對러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**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·지원**할 예정이며, 이와 별도로 **수출입 기업에** 대한 금융 지원도 시행할 계획
 - 정부는 범정부 「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」를 매일 개최하여 미국, EU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의 동향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중
 - 현재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중에 있으며, 애로사항 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및 은행의 대체결제방안을 지원

- 우리기업이 對러시아 결제시 애로가 발생할 경우, 우리기업의 **대체계좌**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
- 또한,「對러 금융제재 관련 **금융애로 상담센터**」를 **금융감독원에**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
 - 금융감독원 「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*」를 통해 기업,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적극 해소를 지원
 - * 금감원(本,支院) 내방, 전화(☎1332→6번), 팩스(02-3145-8662), 인터넷(www.fcsc.kr)을 통해 접수 가능
- ※ 금일 녹실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, **피해 기업** 발생시 **무역금융 및 긴급금융** 지원도 시행할 예정
 -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, 보험금 신속보상(2月→1月나)・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 즉각 개시, 수출입
 피해기업에 대해 필요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(최대 2조원)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) 마련시행 등
- □ 정부는 對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우리기업의 **애로와 불안을 해소**하고, 상황변화에 **신속히 대응**해 나가겠음

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 심현우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 장시열(siyul@korea.kr)
			사무관 이정아(ja9595@korea.kr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 김연준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 권나림(narim0326@korea.kr)
	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	책임자	실 장 김시일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 이승훈(leesh@fss.or.kr)